

## 직업교육

### I. 직업교육 정책

#### □ 교육부,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2016.12.20.)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2월 20일(화)에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
  - \* 진로교육 현황조사: 「진로교육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운영 여건 및 현황, 학교 구성원 인식 등을 조사하는 국가승인 통계(제11216호)
  
- 본 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진로교육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학생의 희망직업
    - ◆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이공계 직업에 대한 선호도 급증
      - ※ ‘생명·자연 과학자 및 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보안 전문가’ 등이 선호직업 상위 10위 진입
    - ◆ 직업 선택 시 ‘학생 흥미·적성(초 64.3%, 중 65.7%, 고 65.2%)’이 가장 중요
  
  - ②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 ◆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5점 만점)는 최근 3년간(‘14~’16) 연속 상승 추세
      - ※ (‘14) 초 3.97점, 중 3.53점, 고 3.37점 → (‘16) 초 4.18점, 중 3.77점, 고 3.64점
    - ◆ 중·고교 학생, 진로동아리 > 진로상담 > 진로체험 등의 순으로 선호

③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

- ◆ 학교 진로활동 참여가 학생의 '자존감'과 '학습태도' 증진에 효과적
  - ※ 교과 내 진로탐색에 참여한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 자존감 차이(중 0.24점, 고 0.22점)
- ◆ 자유학기제, 학생의 '자율적 학습동기' 및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향상 효과

④ 학교 진로교육 현황 및 개선 요구사항

- ◆ 진로수업 활성화를 위해 '진로수업 활용 자료 보급'이 가장 필요
  - ※ 초·중·고 각각 54.4%, 51.7%, 47.3%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 진로상담 활성화의 핵심은 학생, 교사 모두 상담시간 확보
- ◆ 학부모, 학생 진로상담에서 진로전담교사와 담임교사 모두 중요

□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선정 결과 발표(2016.11.22.)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올해 첫 시행된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의 선정결과를 11월 22일(화) 발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

유형	중앙 부처 산하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학교	기업	민간단체	개인 사업장	학원	계
인증 기관수	111	93	147	144/8	46	68	79	25	721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진로체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관의 진로체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인증을 신청한 1,0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서면 심사 및 현장실사, 5개 권역별 인증심사단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721개 기관을 선정

- 선정된 기관은 학생들로부터 강사비, 재료비 등 진로체험 경비 일체를 직접 받지 않으며, 학교 및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재료비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 II. 직업교육 통계

### ◆ 2016년 교육통계연보

□ 고등학교단계 직업교육기관의 학교 수와 학생 수는 공업고등학교가 학교 수 195개, 학생 수 130,463명으로 가장 많음.

표 1. 고등학교단계 직업교육기관의 계열별 학교·학생 현황

(단위: 개교, 명)

연도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수산·해양고		가사·실업고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2000	26	17,874	203	265,837	238	272,650	8	5,607	75	57,683
2001	27	16,792	209	231,716	225	227,710	8	5,016	73	49,548
2002	28	16,408	209	206,518	221	201,849	8	4,619	69	41,632
2003	28	16,322	209	196,496	217	186,284	8	4,538	73	42,787
2004	31	17,024	209	188,230	220	178,021	8	4,538	64	34,736
2005	31	16,846	212	187,092	212	171,903	8	4,472	64	33,857
2006	30	16,657	212	186,821	209	167,665	8	4,415	64	33,102
2007	25	13,737	212	186,096	199	162,988	7	4,043	70	37,191
2008	28	15,547	209	180,580	193	156,055	7	3,993	69	38,537
2009	29	16,298	210	177,161	189	151,886	7	3,899	69	38,601
2010	30	16,492	212	169,758	190	147,435	7	3,737	64	34,153
2011	30	10,706	212	106,837	191	94,153	7	2,292	63	21,460
2012	37	12,026	202	101,222	186	90,524	8	1,974	42	15,361
2013	34	15,825	198	144,254	185	131,940	9	3,056	44	22,370

<표 계속>

2014	38	16,973	198	140,991	187	127,795	8	2,563	44	22,277
2015	38	16,564	197	135,146	184	121,222	8	2,522	46	23,769
2016	37	16,152	195	130,463	185	115,303	8	2,408	46	23,341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 **중학교 졸업자의 2016년 일반고등학교 진학자는 427,554명이며, 이는 전체 고등학교 진학자의 72.2%로 가장 많음.**

- 중학교 졸업자가 진학하는 고등학교의 비율은 매년 대체로 비슷하나 특목고등학교의 진학자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표 2. 중학교 졸업자의 진학 상황

(단위: 명, %)

연도	졸업자	진학자						
		합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2012	학생 수	645,975	644,055	462,794	121,454	20,745	32,639	6,423
	비율	-	100.0	71.9	18.9	3.2	5.1	1.0
2013	학생 수	635,827	633,990	448,792	117,197	21,179	41,538	5,284
	비율	-	100.0	70.8	18.5	3.3	6.6	0.8
2014	학생 수	606,494	604,785	428,523	111,001	21,126	39,910	4,225
	비율	-	100.0	70.9	18.4	3.5	6.6	0.7
2015	학생 수	587,834	586,341	418,576	105,742	21,265	36,509	4,249
	비율	-	100.0	71.4	18.0	3.6	6.2	0.7
2016	학생 수	593,614	592,075	427,554	103,799	21,601	35,254	3,867
	비율	-	100.0	72.2	17.5	3.6	6.0	0.7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2016년 학생 수는 17,618명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함.**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는 2016년 총 42개교로 전년 대비 2개교 증가하였으며, 학급수도 904개로 전년 대비 24개 증가함.

표 3.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현황

(단위: 개교, 개, 명)

연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2014	36	5	27	4	797	174	516	107	15,714	3,465	10,133	2,116
2015	40	5	30	5	880	174	573	133	17,502	3,473	11,117	2,912
2016	42	5	32	5	904	174	601	129	17,618	3,468	11,486	2,664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 일반대학의 졸업자 수는 334,643명으로 전문대학의 178,482명 보다 높게 나타남.

○ 고등교육기관 전체에서 차지하는 일반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48.8%, 전문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26.1%이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문대학 졸업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 4. 일반대학-전문대학 졸업자 수 변화

(단위: 명, %)

연도	고등교육기관 전체	일반대학	전문대학
2008	646,092(100.0)	282,670(43.8)	207,741(32.2)
2009	636,628(100.0)	279,059(43.8)	199,421(31.3)
2010	628,689(100.0)	279,603(44.5)	190,033(30.2)
2011	653,118(100.0)	293,967(45.0)	188,216(28.8)
2012	665,057(100.0)	298,727(44.9)	188,468(28.3)
2013	657,013(100.0)	294,952(44.9)	184,817(28.1)
2014	667,056(100.0)	301,606(45.2)	183,557(27.5)
2015	680,698(100.0)	322,413(47.4)	182,424(26.8)
2016	685,089(100.0)	334,643(48.8)	178,482(26.1)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 2016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연차평가

□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맞춤형 학과 운영,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산학협력 성과 창출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의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는 39,675명으로 전년 대비 11.0%, 캡스톤 디자인 이수학생 수는 94,240명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

표 5.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4차년도 성과

(단위: 명, 건, %)

구분	2015.2	2016.2	증가율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35,757	39,675	11.0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수	81,858	94,240	15.1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실적	1,650	1,906	15.5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4,107	4,587	11.7

자료: 교육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연차평가 결과 보도자료(2016.05.17.)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의 현장실습 이수학생의 평균 비율은 80.7%로 작년 대비 14.3% 증가하였고, 학생창업교육 및 지원과 중소기업 기술지원도 확대되는 추세임.

표 6.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4차년도 성과

(단위: %, 명)

구분	2015.2	2016.2	증가율	
현장실습 이수학생 평균 비율	70.6	80.7	14.3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330	358	8.5	
학생창업교육 및 지원 현황	창업 강좌 시수(시간)	1,456	1,869	28.4
	창업 재정 지원(백만 원)	1,059	1,201	13.4
	창업 공간 지원(m <sup>2</sup> )	5,095.4	5668.9	11.3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술 지도 건수(건)	2,170	2,368	9.1
	기술 지도 업체 수(개)	372	410	10.2

자료: 교육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연차평가 결과 보도자료(2016.05.17.)

◆ 2016년 평생교육통계조사

□ 2016년도 평생교육기관 수는 총 5,177개로 전년 대비 4개 감소함.

- 비행식 평생교육기관은 2016년 4,153개로 전년 대비 9개 증가함.
  -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은 2016년 총 927개로 가장 많으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기관은 792개, 지식·인력개발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은 608개임.
  -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이 전년 대비 24개가 증가하였으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기관은 전년 대비 90개, 지식·인력개발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은 전년 대비 18개가 감소함.

□ 2016년도 전체 평생교육기관의 학생·학습자 수는 전년 대비 5.8% 감소함.

- 비행식 평생교육기관의 학생·학습자 수는 총 11,336,564명으로 전체의 95.2%를 차지하며, 이 중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의 학생·학습자 수가 7,304,497명으로 가장 많음.
-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학생·학습자 수는 총 566,373명이며, 전년 대비 7.4% 감소함.

표 7. 평생교육기관 및 학생·학습자 수

(단위: 개, 명)

구분	기관 수		학생·학습자 수		
	2015	2016	2015	2016	
전체 평생교육기관	5,181	5,177	12,592,143	11,903,895	
비행식 평생교육기관	유·초·중등학교 부설	9	6	1,094	1,337
	대학(원) 부설	403	406	824,011	902,600
	원격형태	903	927	8,043,523	7,304,497
	사업장 부설	414	426	1,179,153	1,206,895
	시민사회단체부설	549	544	140,058	156,000
	언론기관부설	882	792	188,735	151,101
	지식·인력개발형태	626	608	767,210	664,509
	평생학습관	358	444	838,870	949,625
	합계	4,144	4,153	11,982,654	11,336,564

〈표 계속〉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초·중등학교	42	43	8,470	8,159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	-	-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6	3	96	71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54	62	13,516	14,237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초·중·고)	54	36	20,011	15,842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통합과정)	9	16	8,572	10,296
	방송통신대학	1	1	214,347	184,074
	산업대학	2	2	44,679	33,245
	기술대학 (대학·전문대학 과정)	1	1	122	98
	각종학교 (대학·전문대학 과정)	2	2	3,498	3,544
	사이버대학 (대학·전문대학 과정)	19	19	117,528	120,057
	원격대학 (대학·전문대학 과정)	2	2	3,275	3,224
	사내대학 (대학·전문대학 과정)	8	8	782	778
	기능대학	11	11	28,873	28,956
	전공대학	3	3	11,763	11,939
	특수대학원	813	805	132,932	131,853
	합계	1,027	1,014	608,464	566,373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각 연도)

□ 프로그램 주제별로는 직업능력향상이 전체의 35.6%(57,792개), 문화예술 32.8%(53,187개)로 가장 많으며, 시민참여 교육과정은 122개로 가장 적음.

- 성인기초/문자해독 과정은 평생학습관이 467개(67.6%), 직업능력향상은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이 43,239개(74.8%), 인문교양은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이 13,400개(44.8%), 문화예술은 사업장부설이 30,308개(57.0%)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학력보완의 경우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 15,091개(73.2%)로 가장 많으며, 시민참여는 유·초·중등학교 부설을 제외한 평생학습관에서 총 59개를 개설하여 운영함.

표 8.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주제별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유·초·중등학교 부설	57	-	6	6	35	10	-
대학(원) 부설	28,884	15,091	18	4,726	2,899	6,127	23
원격형태	60,917	3,472	29	43,239	13,400	773	4
사업장 부설	35,069	34	1	1,244	3,480	30,308	2
시민단체 부설	3,535	88	107	1,166	624	1,532	18
언론기관부설	3,931	52	33	1,498	626	1,711	6
지식·인력개발형태	8,749	1,366	25	3,622	844	2,882	10
평생학습관	21,142	507	467	2,291	7,974	9,844	59
합계	162,284	20,610	691	57,792	29,882	53,187	122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2016)

□ 프로그램 주제별 학습자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전체의 41.8%(4,747,462명)로 제일 많으며, 주로 원격형태(4,121,127명, 86.8%)로 수강함.

- 평생교육기관 학습자 중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습자는 2,582,136명(22.8%)으로, 이 중 66.1%(1,705,959명)가 원격형태를 이용하고 있음.
- 성인기초/문자해독 프로그램은 주로 원격형태를 이용하는 학습자(23,268명)가 많으며, 문화예술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습자(1,064,868명)가 많음.

표 9.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주제별 학습자 수

(단위: 개)

구분		합계	학력 보완	성인기초/ 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비형식 평생 교육기관	유·초·중등학교 부설	1,337	-	203	47	904	183	-
	대학(원) 부설	902,600	417,079	724	137,321	95,326	250,789	1,361
	원격형태	7,304,497	1,412,461	23,268	4,121,127	1,705,959	41,485	197
	사업장 부설	1,206,895	4,052	26	38,443	98,171	1,064,868	1,335
	시민단체 부설	156,000	1,750	3,045	60,271	60,389	28,851	1,694
	언론기관부설	151,101	1,278	633	58,513	33,342	56,937	398
	지식·인력개발형태	664,509	57,016	1,722	250,038	215,713	139,642	378
	평생학습관	962,195	11,622	21,860	81,702	372,332	466,307	8,372
합계	11,349,134	1,905,258	51,481	4,747,462	2,582,136	2,049,062	13,735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2016) KRIIVET

(작성: 손민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